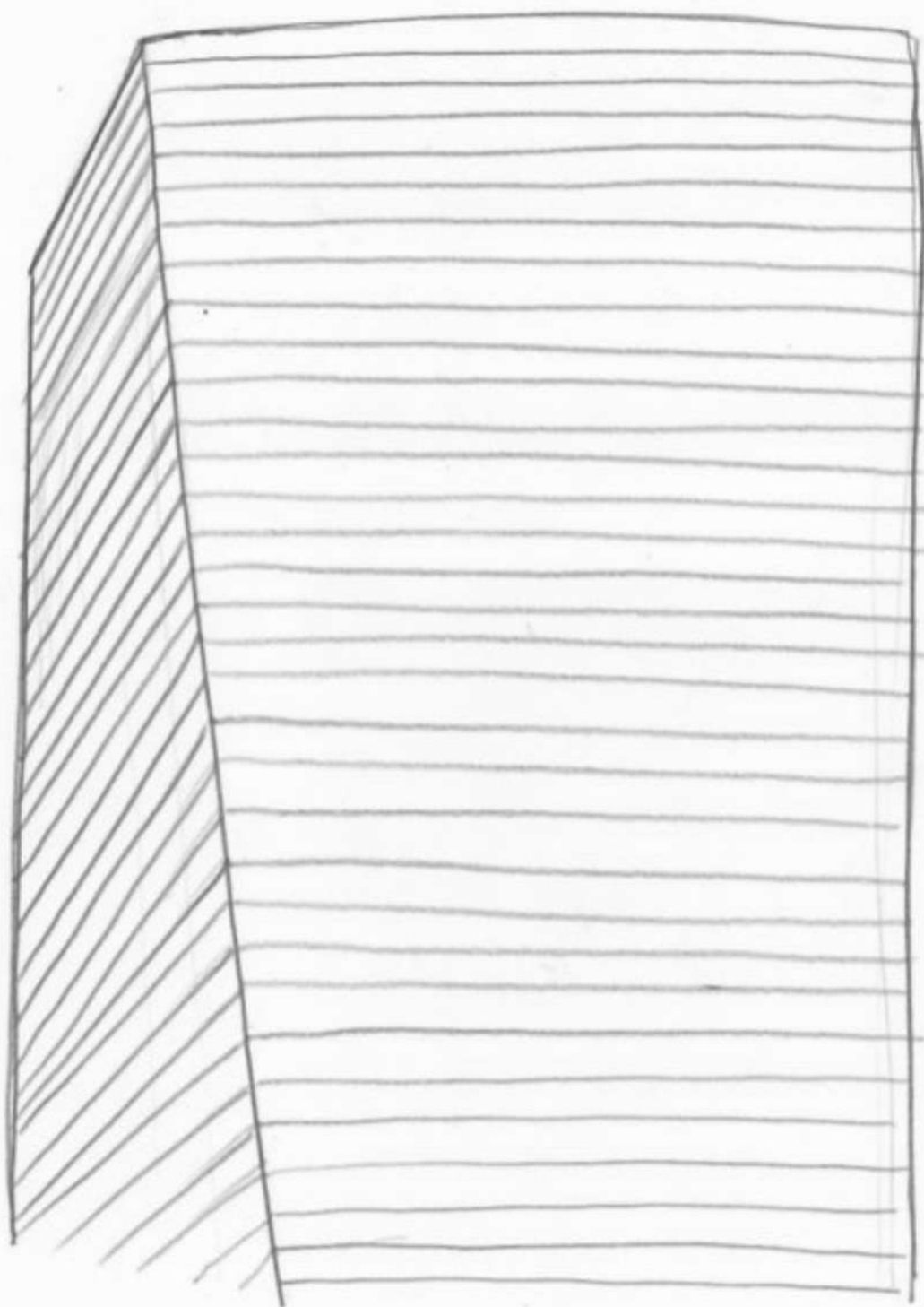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현상을 드러내는 막
시그널 박스

-건축.감각의기술 / 186.P -

블라인드 모양의 구리 패널이 건물 외벽을 수평으로
충충히 감싸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성이넘치는
외피를 가진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블라인드는
건물안의 창에 설치하지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싸는
형태는 많지 않음. 이 건물의 구리 패널은
회전을 통해 완전히 닫히기도, 열리기도 할수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반면 이 건물에는
또다른 기능이 있는데 시그널 박스는 전자선로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전자파를
구리 패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정말 개성과 기능 둘다 충족한 멋진 건물
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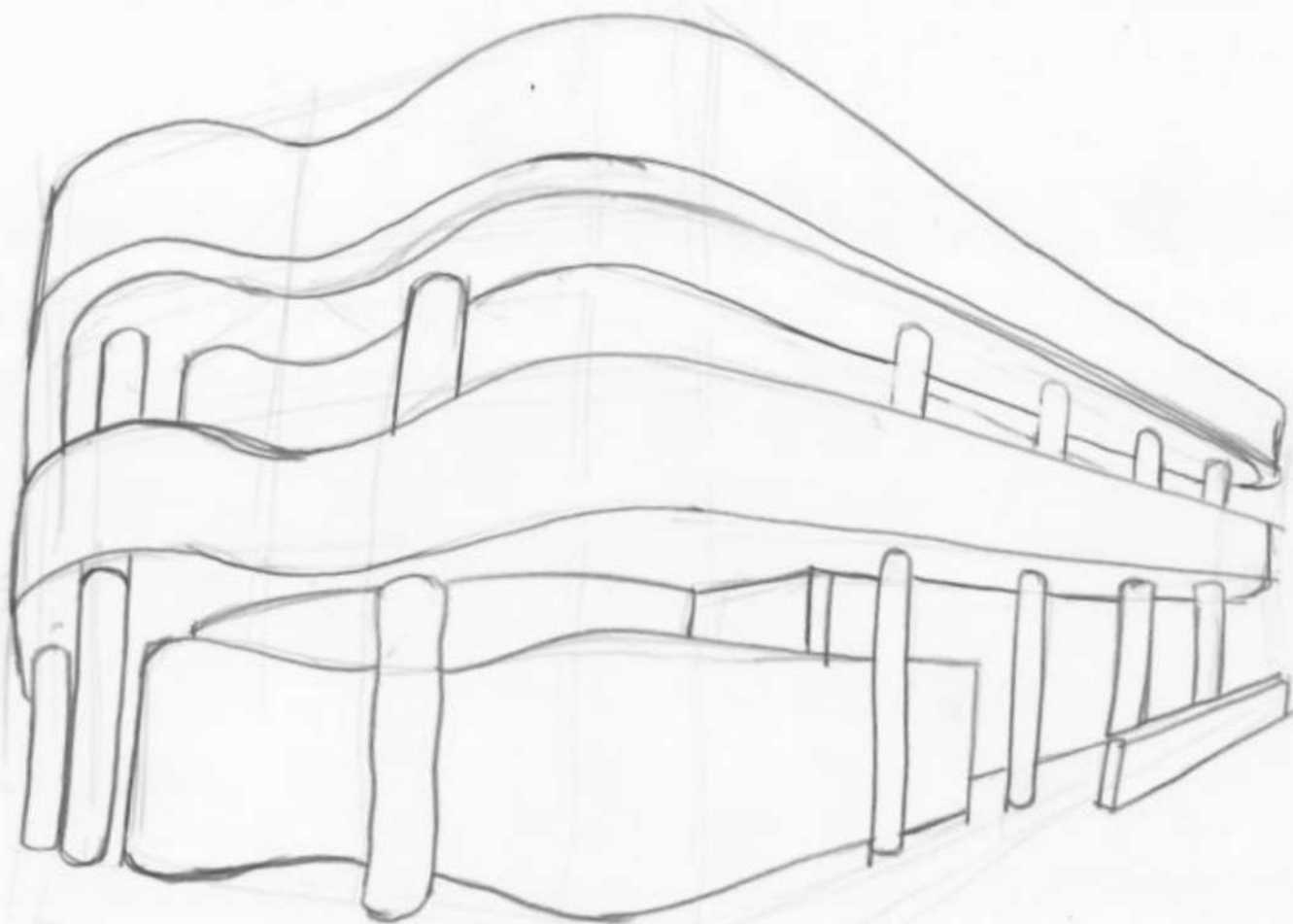
고집스러운 흰색

게티 센터

- 건축, 감각의 기술
34.P-

1천장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로비에서는
흰색 페이턴트의 단정함, 깔끔함과
트래버틴의 따스함을 표현했다.

외부를 보면 거대한 스케일의 흰색
면이 인간적 스케일에 대한
감각을 북돋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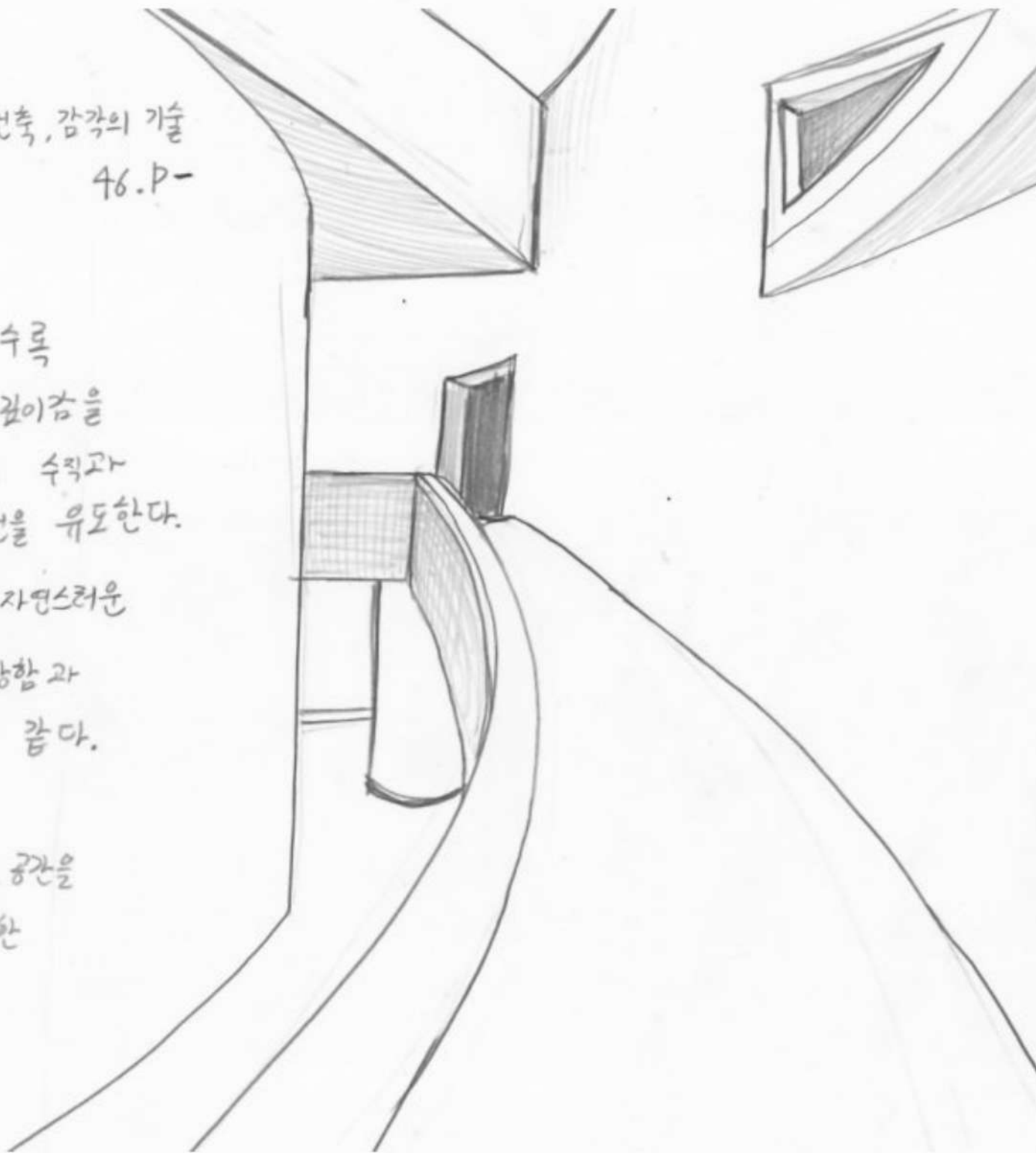


휘어진 동선, 미끄러지는 공간
카야스마 현대미술관

-건축, 감각의 기술
46.P-

경사로의 시작 지점은 넓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방문객은 과장된 방향성과 깊이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안쪽으로 휘어지며 수직과
수평의 교차를 만들어 입체적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천장의 자연광이 특선의 벽을 바둑마처럼 자연스러운
그림자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깊은 웅장함과
가벼움이 이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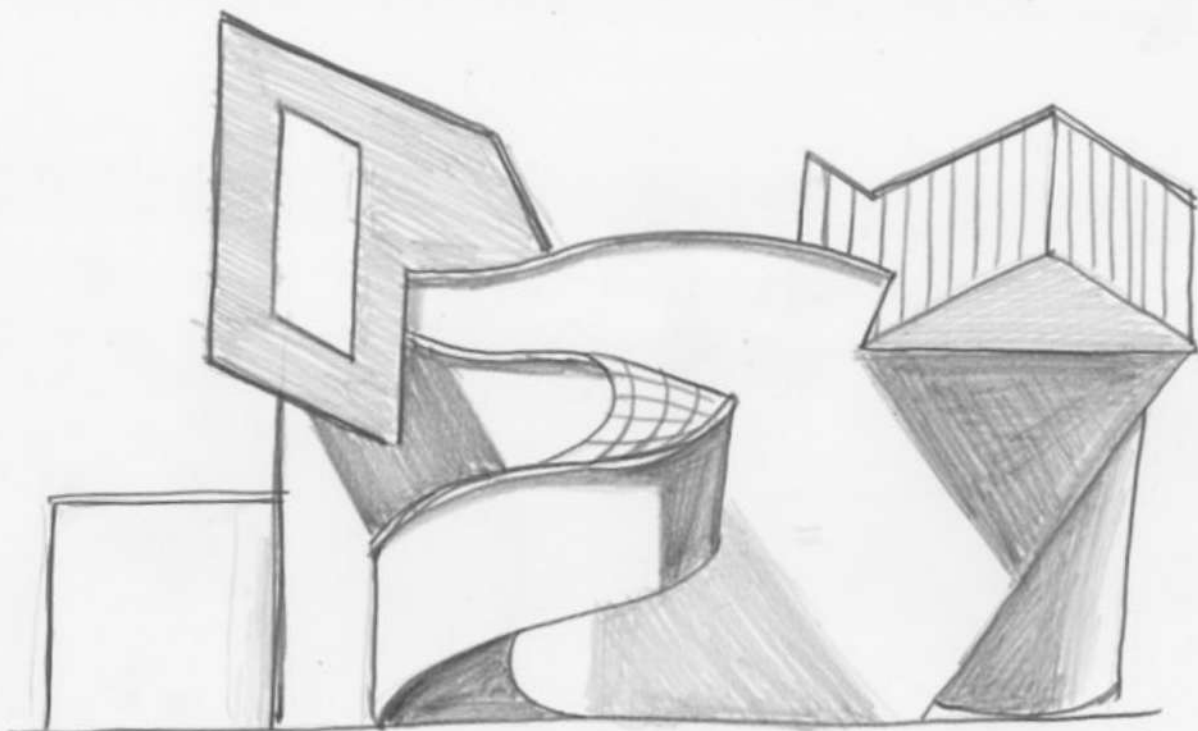
이런게 스티븐 홀은 몸으로 체험하는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움직임과 빛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했다고 한다. 정말 미술관
자체도 미술이 된 느낌이다.



차원을 만드는 흰색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 건축, 감각의 기술
52,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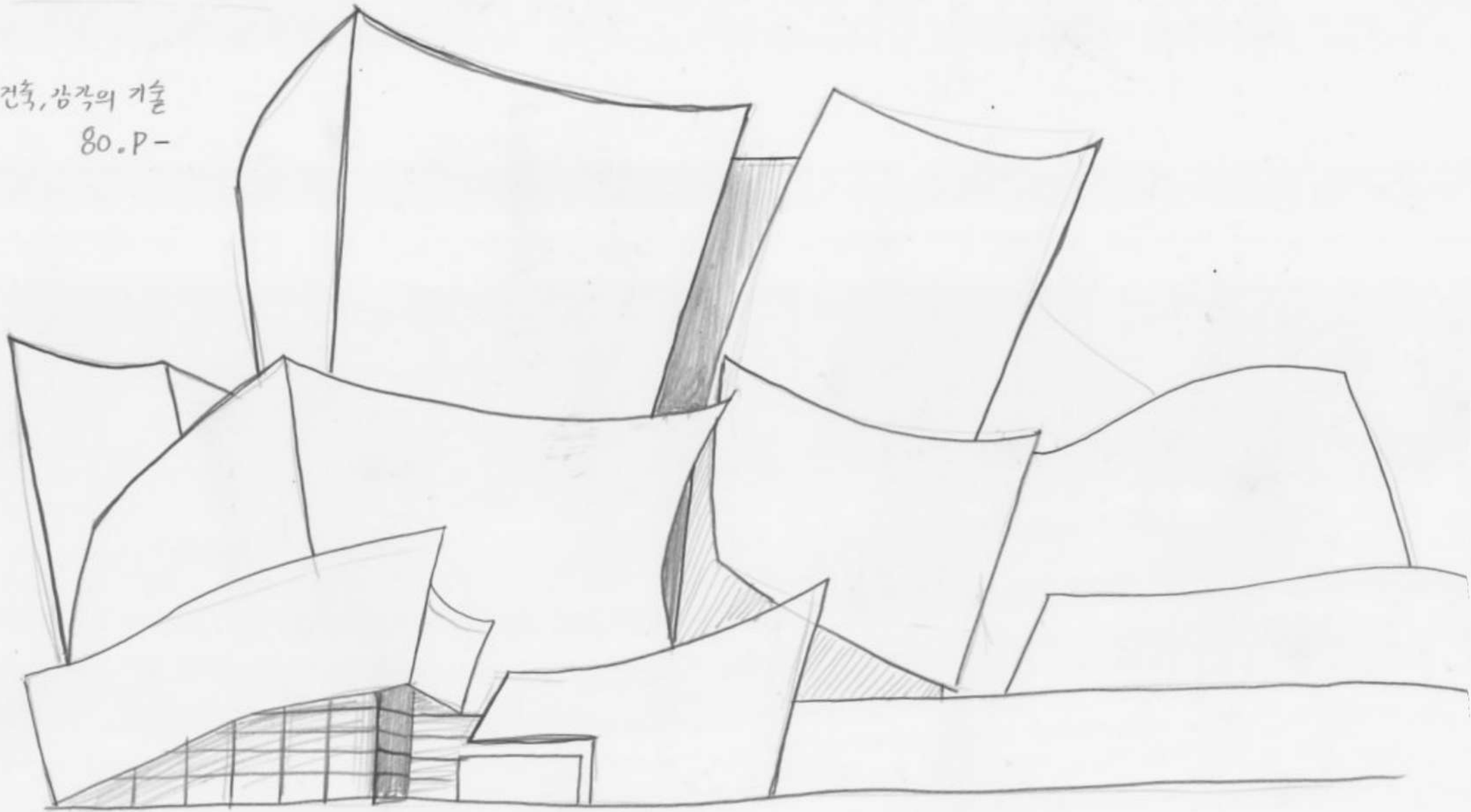
이건물의 특징은 흰색의 벽에 역동적인
지붕의 윤곽선으로 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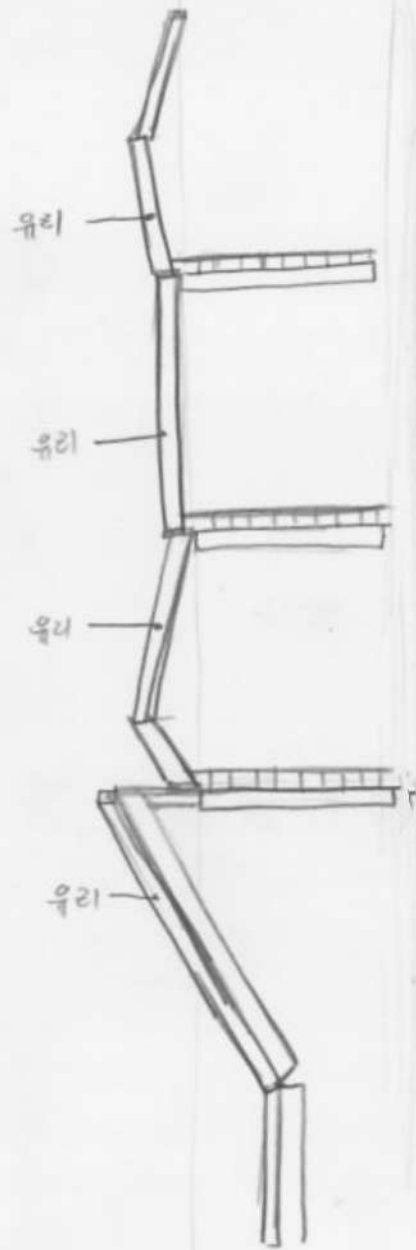
내부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드러난 요소들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흰색 벽체의 일체감과 역동적인 지붕의
모습이 기묘하면서도 일체감이 느껴진다
이런 디자인적 감각은 어떻게 키울수 있을까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건축, 감각의 기술
80.P-





매체가 되는 표면
 뜯루먼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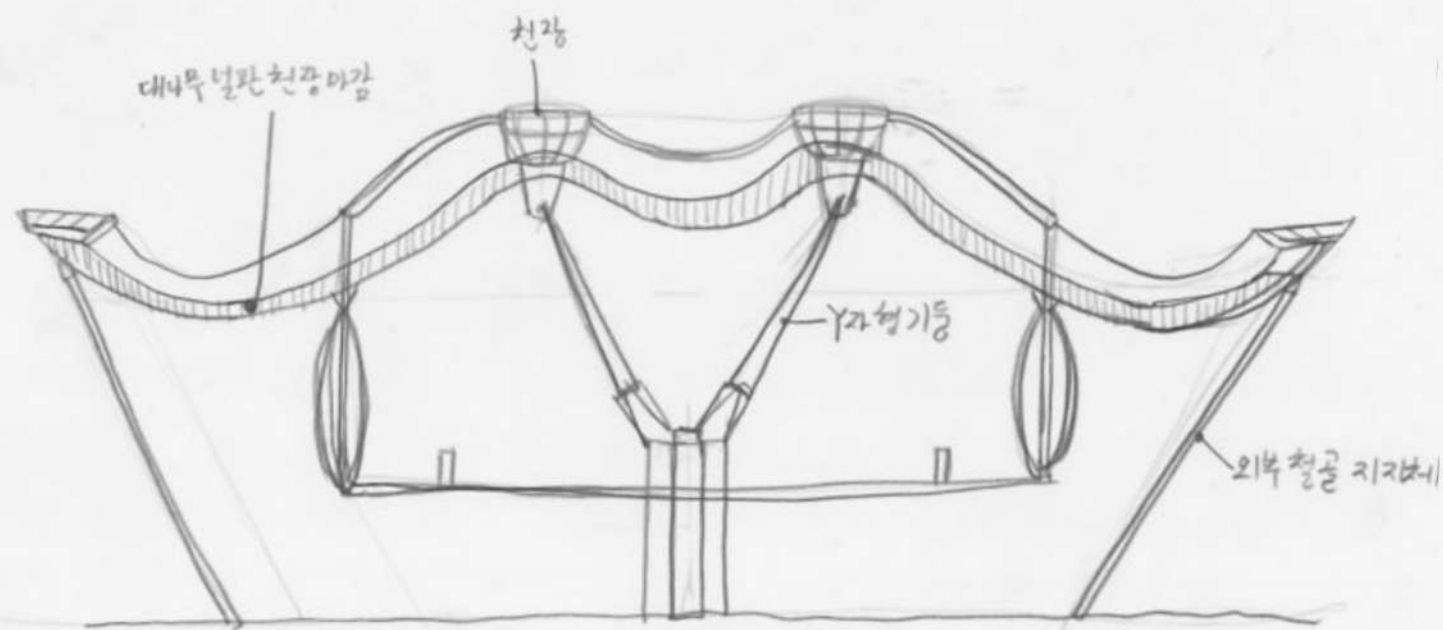
- 건축, 감각의 기술 -
 -130.P-

바코 리이방거는 상암동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첨단기제를 판매하는 회사 이미지를 추상화하여
 건축 외피에 표현했다. 유리는 재료가 가진
 매체성에 주목하여 유리로 표면을 만들었다.
 유리의 투명하고, 반짝이고 빛을 들이기도 빛을
 튕겨내기도 하는 특성을 표현해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건물이 완성된 것 같다. 이러한
 표현도 놀랍지만 이러한 재료의 특징, 본질을
 꿰뚫고 활용하는 센스가 놀라웠다.



가벼움의 구조

바라하스 국제공항 - 건축, 감각의기술/342 P-



공항은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다.

마르코 오레가 말한 '비장소'에 속하는
공항은 실제 공간에 속하여 직접적인
관재를 맺고 있어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공항에서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동선흐름이 원활하도록
개방적이고 커다란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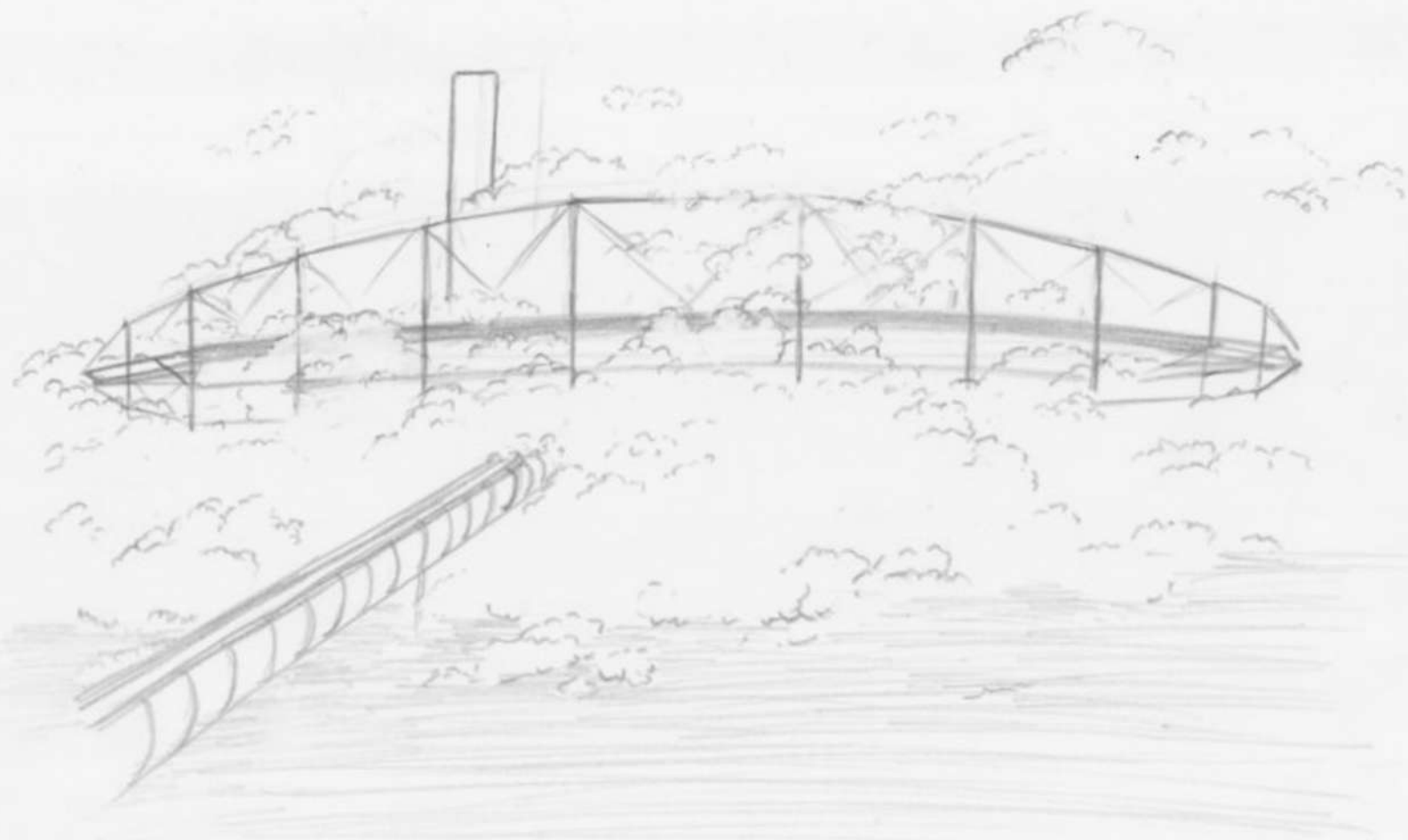
각 나라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장소인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이 바라하스의
국제공항은 대나무 널판으로 이루어진
천장을 나무의 가지 같은 기둥이 받쳐
올리는 형태이다. 가볍고 자연의 느낌이
나는 대나무 소재의 지붕이 곡선적이고
연속적으로 배치되어있는 형태에 밀종의
따스함과 경쾌한 가벼움을 느꼈다.
이 공항이 가지는 반복적인 음률을 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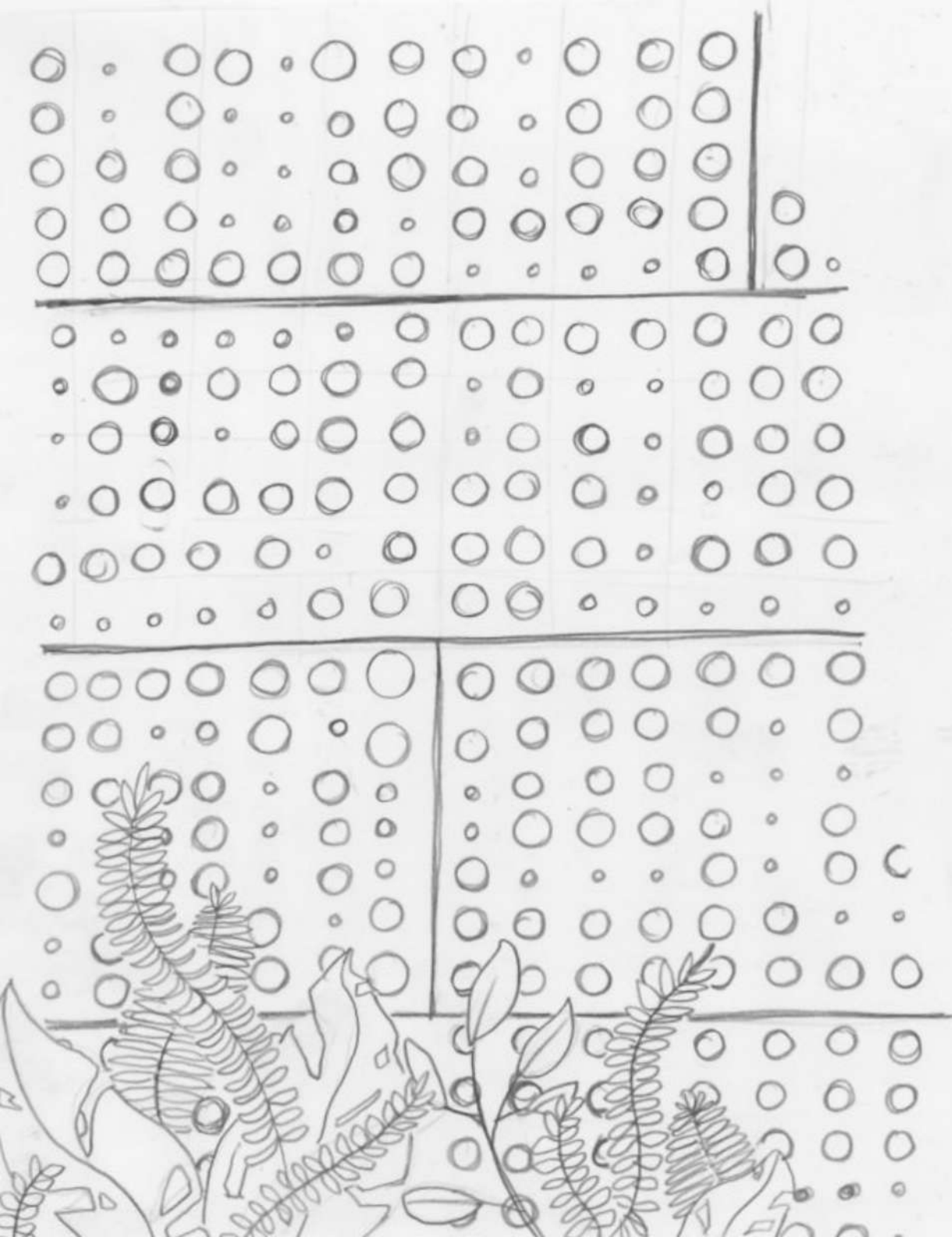
대기의 건축, 형식없는 형식
블러 빌딩

- 건축, 감각의 기술 / 244.P -

블러 빌딩은 안개나 구름을 만드는
자연을 원리를 인공적으로 재현해
방문자들에게 '흐림의 상태'를
제공한다.

블러 빌딩은 기존의 안정적이고
견고한 건축과는 대비된다.
소재, 질감, 공기, 빛을 교묘히
조절하여 형태를 모호하게 만들어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각적인
분위기 형성함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다.
또한 수증기를 이용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어 일종의 벽을 형성한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꼭 한번쯤 체험
하고 싶은 장소 중 하나이다.





숲을 닮아가는 건축, 자연에 다가서는 기술
드영 미술관

- 건축, 감각의 기술

282.P-

헤르조그 & 드외롱은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살리는 작품을 많이 만드는 건축가들이다. 드영미술관의 외피는 타공 및 엠보싱 패턴이 들어간 동판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타공은 숲에서 보이는 빛의 패턴인 별뿔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판은 점차 부식되며 환경에 반응해 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자연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시간의 흔적을 기록하는 듯한 이 외피는 재료의 물성을 정말 창의적이고 멋지게 활용한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ABC 뮤지엄

-건축, 감각의 기술 / 22.P-

파편화된 삼각형 패턴의
천장 아래에 위치한 전시실은
천장을 통해 빛을 받아들인다. 내부의
화려한 원색의 벽돌, 노랑, 파랑의
컬러는 감각적인 시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